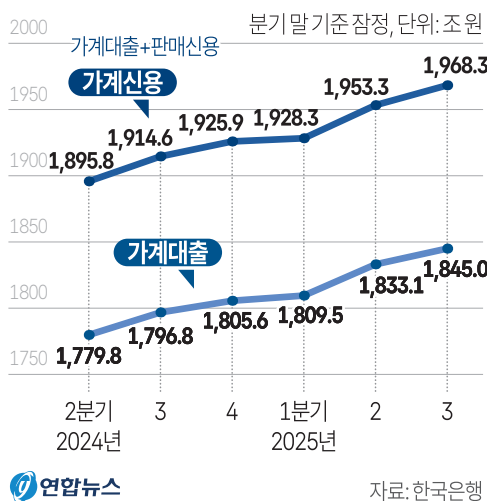


올 3분기 가계빚 1천968조 ‘역대 최대’

가계신용 잔액 추이



2분기 말 대비 14조9천억 늘어

6·27대책 등 영향 증가폭은 줄어

주담대 11조6천억·기타 3천억 ↑

올해 3분기(7~9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6·27 대책 등에 증가 속도는 뚜렷하게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68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1천953조3천억원)보다 14조9천억원

늘어 202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다만 분기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2분기(25조1천억원)보다 약 10조원(40%)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 작년 1분기 3조1천억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3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천845조원으로

전 분기 말(1천833조1천억원)보다 12조원 불었다. 증가액은 전 분기(+23조6천억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159조6천억원)이 11조6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5조4천억원)도 3천억원 증가했다.

대출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1천3조8천억원)이 석 달 사이 10조1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0조9천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은 8천억원 뒤틀림을 보였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6조2천억원)도 2조원 불었다. 작년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

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은 2분기 3조원보다 줄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5조원)은 1천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가계대출 특징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도 2분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123조3천억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위주로 3조원 증가했다.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1만개 ↑ …건설업 급감

증가폭 역대 두번째로 작아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늘어나며 증가 폭이 역대 두번째로 작았다. 건설·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며 청년층 일자리는 13만개 넘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5만개로 작년 동기보다 11만1천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1만5천개)에 이어 두번째로 작다.

작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 비중이 73.1%(1천530만8천개)로 나타났고, 신규 채용(대체+신규) 일자리는 56만1천개로 26.9%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20만9천개 일자리는 소멸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13만4천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천개)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4만1천개 급감했다. 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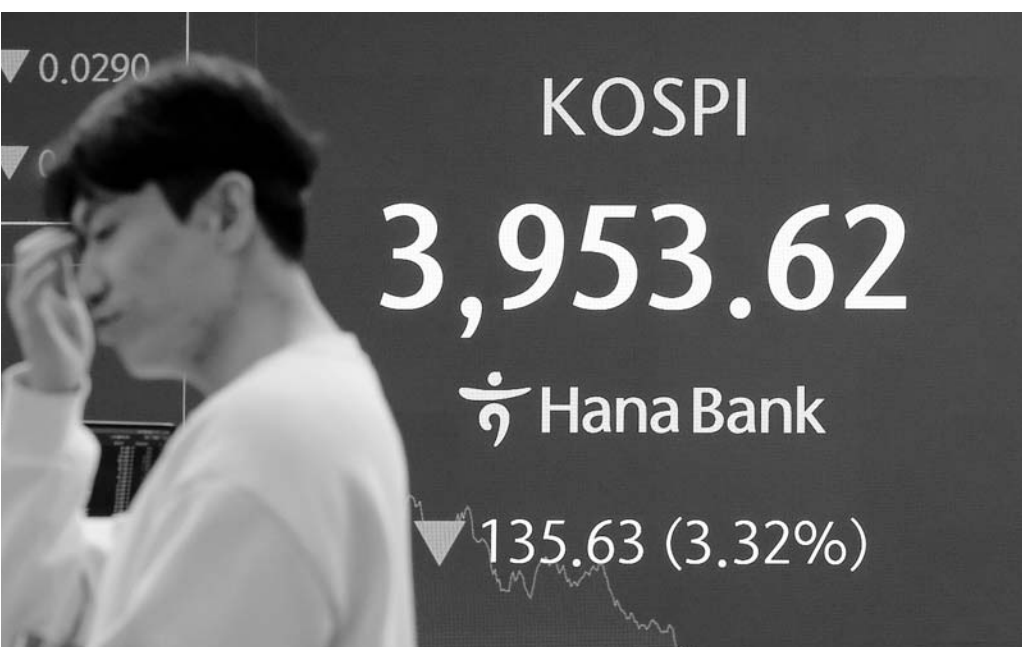
제조업도 1만3천개 줄어 지난 1분기(-1만2천개)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을 뜻하는 20대 이하에서 13만5천개 급감했다.

20대 이하는 특히 제조업(-2만2천개), 정보통신(-2만1천개), 건설업(-2만1천개) 등에서 줄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8만개 감소했다.

60대 이상(23만5천개), 30대(7만6천개), 50대(1만5천개)는 증가했다.



4천선 무너진 코스피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35.63p(3.32%) 내린 3천953.62에, 코스닥지수는 23.97p(2.66%) 내린 878.70에 장을 마감했다.

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 강도 높은 제재”

농협중앙회는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공감해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전일 실시했다. 또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점 신설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과거에는 수사나 법적 판단 결

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부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 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한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배매입 등 특수목적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산 고품질 신선포도 북미시장 진출 본격화

aT, 美서 ‘프리미엄 K-포도 런칭쇼’

맛·향·식감 완벽조합 신제품 소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8일 “전날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버진호텔(Virgin Hotels NYC)에서 ‘프리미엄 신제품 K-포도 런칭쇼’를 개최하고 한국산 고품질 신선포도의 북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한국산 신제품 포도의 수출확대와 시장다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미국 내 주요 수입바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업체 관계자, 인플루언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주 수출품목인 샤인머스캣을 비롯해 최근 개발된 글로리스타, 코코볼, 홍주 씨들리스, 슈팅스타 등 한국의 프리미엄 신제품 포도가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색과 맛은 물론 깊은 풍미를 지닌 K-포도와 이를 활용한 고급 에퍼타이저 2종과 디저트 3종이 등장하자 탄성을 자아내며 연신 호평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수입바이어 ESU 팜의 다니엘 리 이사는 “미국 소비자들은 씨가 없고 아삭한 식감의 껍질째 먹는 스낵형 포도를 선호한다”며 “오늘 소개된 신제품 포도는 맛과 향, 식감 등이 매우 우수해 현지에서 충분히 통할만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췄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미국 내 생식용 포도시장에는 캘리포니아산과 칠레, 페루, 멕시코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품종 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입 포도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동남아에 편중된 국내 포도 수출시장이 이번 신제품 포도 런칭쇼를 계기로 북미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장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미 포도 수출액은 2024년 8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돼 지난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약 530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태호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고급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그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종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